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9年 百家爭鳴”

儒敎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념의 冷靜과 욕망의 熱情 사이
正常과 異常의 대결 역사
性・情의 대립과 상생

2019년 11월 29일(금) 13:00 ~ 18:40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308

2019년 11월 30일(토) 13:00 ~ 18:00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308 / 31406 / 31310

초대의 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2019年 百家爭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는 유교문화연구소는 이를 기념하며 국내의 원로 학자와 중진 연구자, 신진 연구자 50여 명을 초청하여 유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날은 원로 학자들에게는 그동안의 연구 업적과 남은 과제에 대한 생각을 청해 듣고, 현재 학문의 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진 학자들에게는 이전 세대에게 받은 학문 축적의 의의와 더불어 연구하고 싶은 주제와 그 이유를 듣고, 미래에 유학의 학문을 이끌어 나갈 소장 학자들에게는 이전 연구에 대한 업적과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둘째 날은 “理念의 冷靜과 欲望의 熱情 사이”, “正常과 異常의 대결 역사”, “性·情의 대립과 상생”을 주제로 유학자들의 다양한 삶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유학 연구의 중심에는 ‘理’, ‘經’, ‘正’, ‘古’, ‘性’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삶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살펴보면, 중심이 아닌 주변에 놓여있던 것들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학자들의 다양한 삶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理’, ‘經’, ‘正’, ‘古’, ‘性’을 추구했던 삶과 ‘欲’, ‘藝’, ‘奇’, ‘今’, ‘情’을 추구했던 삶을 함께 드러내보려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어쩌면 ‘欲’, ‘藝’, ‘奇’, ‘今’, ‘情’이 중심을 차지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심과 주변의 대화가 필요하기에 그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내의 원로, 중진, 소장 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유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나보고, 유학자들의 다양한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번 학술회의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장 신 정 근